

엄지성 'PK 결승골' 광주, 20승 고지 선착



부산전 1대0...11경기 연속 무패 부동의 선두 질주

프로축구 K리그 2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광주FC가 시즌 20승 고지에 선착했다.

광주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엄지성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했다.

광주는 최근 2연승과 함께 11경기 연속 무패(6승 5무)를 기록했다.

또 이번 시즌 부산과의 4차전(4월6일 홈 1-0, 5월28일 원정 3-0, 7월27일 원정 2-0, 8월27일 홈 1-0) 맞대결을 모두 무실점 승리로 마무리하며 천적관계를 형성했다.

광주는 전반 중반 이후 산드로를 앞세워 부산의 골문을 노렸다.

전반 20분 산드로의 발리 슈트는 높이 났고, 28분 오른발 프리킥은 부산 골키퍼 구상민 선방에 막혔다.

선두 광주와 최하위 부산의 팽팽하

던 승부는 전반 33분에 광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헤이스가 페널티 지역에서 돌파하다 김상준의 태클에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 킥을 선언했다.

엄지성이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시즌 8호골.

광주는 전반 39분 부산 박정인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하며 부산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영규 대신 김재봉을 투입했고, 2분 뒤 하승운을 투입, 10명이 된 부산을 상대로 추가골을 노렸다.

후반 15분 이민기의 헤더가 구상민의 선방에 저지당했다.

추가골 의지를 불태우던 광주는 허울, 박한빈, 이요섭을 투입하며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산의 골문을 열리지 않았고,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됐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엄지성이 지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도시철도공 신유나 전국실업유도 '金 메쳤다'

실업새내기 첫 금 신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 막내 신유나(24)가 "2022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입단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유나는 28일 강원도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57kg급 결승에서 김이현(충북도청)을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바타리결기 절반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출신으로 용인대를 거쳐 올해 광주도시철도공사 팀에 입단한 이후 2개의 동메달(6월 2022 양평 몽양갑 전국유도대회·7월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획득으로,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신유나는 이번 대회에서 첫 정상에 오르며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신유나는 8강전 김재령(경남도청)의 기권패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김마리(부산북구청)와의 맞대결에서는 주특기인 바타리후리기로 기분 좋은 한 판승을 따내며 결승에 올랐다.

신대철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감독은 "그동안 금메달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흘렸던 (신)유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기쁘다"면서 "오는 10월에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28일 열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실업팀 입단 후 첫 금을 수확한 신유나가 신대철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이강인이 지난 27일 열린 라요 바예카노와 원정 경기에서 시즌 1호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강인, 마수걸이 축포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는 이강인(21)이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마요르카는 지난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데 바예카스에서 열린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3라운드 라요 바예카노와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전반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9분, 골키퍼의 골킥이 상대 수비 머리 맞고 흐른 공을 잡아 상대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한 후 왼쪽 측면에서 그대로 원발 슈트로 라요 바예카노 골문을 열어 제치며 시즌 마수걸이 득점을 올렸다.

2라운드 레알 베티스와 경기 후반에 프리킥으로 크로스바를 때린 아쉬움을 털어내는 골이었다.

지난 경기 도움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강인은 지난해 9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골을 넣은 이후 11개월 만에 마요르카 소속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열린 올림픽제페기부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광주선수단. 왼쪽부터 김정훈, 김민서, 최예진, 오예진, 김정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여대 양궁, 단체전 '銅'

회장기 대학양궁, 조선대 김정훈 개인전 값진 銅

광주여대 양궁부가 올림픽제페기부 제39회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27일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체대에 세트 스코어 4 대5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국가대표 예이스 안산이 빠진 광주여대는 김민서, 오예진, 최예진, 김정윤이 팀을 이뤄 8강전에서 순천대를 6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1세트는 57-54로 따낸 광주여대는 2세트는 52-55로 내줬고, 3세트는 58-57로 이기며 앞서갔으나 4세트에서 53-57로 패하며 세트오프에 돌입했다.

결승 진출이 걸린 세트오프에서 25점(9-8-8)을 쏜 광주여대는 28점(10-10-8)을 쏜 한체대에 아쉽게 패했다. 한체대는 결승에서 원광대를 꺾고 여자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26일 올림픽라운드 열린 남자대학부 개인전에서는 김정훈(조선

대)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훈은 8강까지 열린 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 기량으로 준결승에 안착했다.

64강에서 유강민(상지대)을 6대0, 32강에서 박지민(안동대)을 6대0, 16강에서 최성식(서원대)을 6대0, 8강에서 용혁중(한체대)을 6대0으로 제압했다.

김정훈은 준결승전에서 북병 서민기(계명대)에게 2대6으로 발목이 잡히며 완벽했던 질주를 아쉽게 멈췄다. 김정훈은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금빛과녁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박희중 기자

홍지원, 역대급 난관 뚫고 '메이저 퀸'

100mm 러프 이겨내고 KLPGA 한화 클래식서 생애 첫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차 홍지원(22)이 깊은 러프를 무장한 난코스 뚫고 메이저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냈다.

홍지원은 28일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한화 클래식(총상금 14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오버파 289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KLPGA투어에 발을 디딘 홍지원은 작년과 올해 합쳐 10위 이내 입상이 단 네 번뿐이어서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던 무명 선수.

100mm를 넘긴 깊은 러프와 빠르고 단

단한 그린으로 무장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에서 홍지원은 나흘 동안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끝에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박민지(24)를 4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억5천200만 원을 받은 홍지원은 상금랭킹 20위(3억931만원)로 뛰어 올랐다.

홍지원은 이 대회 전까지 2시즌 동안 47개 대회에서 2억6천392만원의 상금을 받았을 뿐이다.

내년 시드 확보가 불안하던 상금랭킹 82위에 그쳤던 홍지원은 이번 우승으로 2025년까지 시드를 확보했다.

홍지원은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3위

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우승으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홍지원은 홍진영(22)과 함께 이번 대회 나흘 동안 더블보기 이상 스코어를 한 번도 적어내지 않은 2명 가운데 한 명이다. 특히 홍지원은 나흘 동안 단 15개의 보기만 기록해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타수를 적게 잃었다.

박민지는 7번 홀(파3)에서 벙커샷 실수로 더블보기를 한 뒤 3개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반등, 1언더파 71타를 친 끝에 준우승(오버파 293타)을 차지했다.

웬만한 대회 우승 상금과 맞먹는 준우승 상금 1억5천400만원을 챙긴 박민지는 상금랭킹 1위를 굳게 지켰다. /연합뉴스



홍지원이 28일 열린 '한화 클래식 2022'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KLPGA 제공>

공동 10위(11오버파 299타)로 대회를 마친 유혜란(21)은 대상 포인트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등 13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대상

광주시체육회, 스포츠 인권교육 호평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5-26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관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수 및 지도자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의 토론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틀간 실시한 교육에는 광주시청 육상팀 등 12개 종목 13개 직장운동경기부(광주시청, 5개 구청,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선수와 지도

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지난 스포츠 인권 및 도핑 교육에서 호평 받았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 임다연 강사(극동대 교수)와 스포츠 인권연구소 사무처장인 정용철 강사(서강대 교수)를 초빙해 실시했다. 이들은 스포츠선수의 윤리와 인권 및 역할, 인권 친화적 코칭방법론 입문 등의 주제로 강의했다.

선수과 지도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포츠 인권의 이해 및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세계개인선수권 첫 우승 무산

속적 야마구치 벽 못 넘어

한국 여자 배드민턴 예이스 안세영(20)이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25·일본)에게 패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안세영은 지난 27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에게 0-2(19-21 12-21)로 패했다.

29년 만에 한국 선수의 세계개인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 진출에 도전했던 안세영은 발목 부상에 고개를 떨궜다.

1세트 역전패가 무엇보다 아쉬웠다. 안세영의 끈질긴 수비에 야마구치가 공격 범실을 연발하면서 17-15로 안세영이 앞섰다.

하지만 야마구치가 강한 대각 공격으

로 안세영의 수비를 흔들면서 4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안세영이 수비를 앞세워 가까스로 19-19 동점을 만들었지만, 야마구치의 다시 공격과 연타 공격이 연이어 터지면서 1세트를 내줬다.

안세영은 2세트에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체력 소모로 집중력이 떨어진 듯 수비에서 아쉬운 범실이 이어졌다.

가까스로 견어낸 서투록이 네트를 맞거나, 엔드라인을 넘어갔다.

실상가상 안세영은 2세트 도중 오른쪽 무릎 이상을 느껴 응급조치를 한 상태 경기기를 뛰어야 했다.

결국 야마구치가 파장 공세로 안세영을 밀어붙이며 21-1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전남도-中장시성, 바둑으로 청소년 교류

전남도는 지난 27일 순천 한국바둑·중고등학교에서 '전남도와 장시성 간 청소년 바둑교류전'을 열어 수담(手談)을 통한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중국 장시성 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미래의 주역인 양 지역 청소년의 우호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전남도는 2018년 중국 저장성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으로 두 지역의 강점인 저장성 바둑과 전남 배드민턴 종목

으로 청소년 교류를 시작했다. 이어 2019년에는 장시성과도 탁구와 축구, 2개 종목으로 체육교류를 시작해 상호 교차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청소년 우호 교류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두 지역 청소년이 직접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으나, 올해는 장시성과 바둑을 매개로 초·중·고등학교 30명 씩을 대표로 선발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단체대항전을 치렀다. /김재정 기자